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 전시회 '엑스포컴 코리아 2005' 나흘 일정 마쳐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인 제10회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엑스포컴 와이어리스 코리아 2005'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텔레매틱스 ▲휴대인터넷 ▲DMB ▲홈네트워크 등 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정 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관한 제10회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엑스포컴 와이어리스 코리아 2005'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테평양홀에서 진행됐다.

'방송과 통신이 하나되는 컨버전스 코리아'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등 10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관람객이 7만명을 상회했던 것으로 주최측은 추정했다. 또 개막식 당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과 이기태 정보통신산업협회(KAIT)장 겸 삼성전자 사장,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박문화 LG전자 사장 등 업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기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와이브로(Wibro)와 DMB는 CDMA에 이어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이라며 "정부와 업체가 함께 노력해 이동통신 중주국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첨단 신제품 · 이벤트 · 도우미 등 화제만발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전자 등이 경쟁이나 하듯 대형부스를 열고 첨단 신제품들을 전시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첨단 디지털기기와 결합한 휴대폰을 대거 출품해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를 주도하는 기업임을 실감케 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전시회인 세빗(CeBIT)을 비롯한 주요 해외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700만 화소 카메라폰(V770), 슬라이드형 가로화면 위성DMB폰(B200), 3GB 슈퍼뮤직폰(i300) 등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국내 출시된 휴대폰 가운데 가장 두께가 얇으면서도 첨단 기능을 갖춘 초슬림폰(V740)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V740은 두께 14.5mm, 무게 98g으로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얇고 가볍다. 여기에 130만 화소 카메라, 블루투스, 파일보기, MP3 등 첨단 기능이 모두 탑재됐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비트박스폰(S310), 블루블랙 블루투스 뮤직폰

(V6900), 3D 게임폰(G100/G1000), 무선랜 뮤직폰(M4300), 가로화면 뮤직비디오폰(V6000/V6000) 등 최근 국내 휴대폰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시장 전체를 체험코너(Experience Zone)처럼 운영해 고객들이 직접 음악, 게임, 댄스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21일에는 블루블랙폰(V6900) 광고모델로 새롭게 활동중인 문근영의 사인회를 개최하는 등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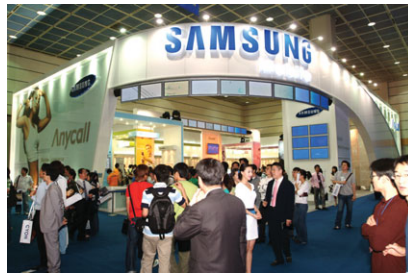
올해로 9회째 참여한 SK텔레콤은 한국 이동통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여는 첨단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Mobile History' 관을 부스 전면에 배치해 이동통신 초창기의 차량용 단말기부터 현재 사용하는 최신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를 전시하는 한편,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코너에서 멜론과 씨플, GXG, 1mm, 모바일 싸이월드 등의 다양한 신규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유비쿼터스&컨버전스' 코너에서는 기존 방송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위성 DMB와 외부에서 원격으로 방문객을 응대하고 집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홈, 음성만으로 목적지를 찾아가고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길안내도 담당하는 텔레매틱스, 휴대전화 하나로 신용카드와 은행, 멤버십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네타와 같은 이동통신의 첨단 기술들이 전시됐다.

특히 제3세대 이동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WCDMA 서비스 시연을 통해 한국 이동통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상을 확고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화할 수 있는 화상통화는 물론 무선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SK텔레콤은 전시기간 중 부스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폰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 주는 '네이트 포토'를 비롯, 부스 내에서 바이올린 연주와 마임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1mm 서비스의 기본 캐릭터인 '오다봉'으로 분장한 전문 댄서가 등장해 파워 브레이크 댄스도 선보임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전자 등이 경쟁이나 하듯 대형부스를 열고 첨단 신제품들을 전시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첨단 디지털기와 결합한 휴대폰을 대거 출품해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를 주도하는 기업임을 실감케 했다.

휴대폰도 프리미엄! 전시도 프리미엄!

136평 규모의 부수를 연 LG전자는 DMB 폰, 네비게이션폰, 디카폰, 게임폰, 뮤직폰, 패션폰 등 6개 존을 마련, 위성DMB폰, 네비게이션폰, 500만 화소 디카폰, 3D 게임폰, Up & Down 슬라이드 블루투스 뮤직폰, 스포츠카 스타일폰, 헬스케어폰 등 20여종의 첨단 휴대폰을 선보였다.

LG전자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기존 디자인의 틀을 깨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동시에 선보이며 프리미엄 멀티미디어 휴대폰으로서의 '싸이언(CYON)'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그동안 해외에서 호평을 받아왔던 다양한 프리미엄 휴대폰을 이번 전시회에서 대거 공개했다.

인터넷 메신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를 가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한 '퀵터 메신저폰(자판 휴대폰/F9100)', 러시아 에지(EDGE)폰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내 출시할 계획인 '슬라이드형 EDGE폰(A7150)', 동영상 통화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WCDMA폰(U8138)' 등은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LG전자의 앞선 글로벌 기술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전자는 축구 천재 박주영 선수를 내세운 TV광고가 한창인 '위성DMB폰(SB120)'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젊은 축구팬들을 중심으로 '박주영폰'으로 불리며 출시되기도 전에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 휴대폰은 360도 회전형 DMB폰으로 고화질/고선명을 자랑하는 QVGA LCD창에 3D 입체음향을 구현하며, 최대 3시간까지 연속 TV시청이 가능해 야구 경기나 장편 영화를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D 게임폰에 탑재될 온라인게임 '리니지2' 동영상을 공개해 청소년층의 관심을 유발시켰다. LG전자는 엔씨소프트와 '온라인게임과 핸드폰의 만남'이라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새로운 '리니지2' 동영상과 음악을 최신행 3D 게임폰에 탑재했으며, LG전자는 이번 전략적 제휴가 멀티미디어 휴대폰 강자로서 자사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의



주력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였다. 'Dynamic CYON Move' 라는 타이틀 아래 힙합댄스 그룹의 공연과 스포츠 패션쇼(Sports Fashion Show) 연출, 그리고 축구의 페널티킥을 적용한 플래시 프로그램으로서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한 '축구 빙고 게임' 과 카메라폰 촬영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토 서비스 존' 등은 관람객들에게 새롭게 변화하는 싸이언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함은 물론, LG전자 휴대폰의 최첨단 기술력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 '눈길'

대형부스를 연 대기업들이 화려한 이벤트와 도우미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데 반해 중소기업들의 부스들은 비교적 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들의 부스에도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특히 선양디엔티는 작은 화면을 공간상에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휴대용 가상디스플레이 시제품을 시연해 화제를 모았다. 휴대용 가상디스플레이는 홀로그램 패턴 확산판을 활용해 휴대전화기나 DMB폰 등 소형 단말기의 작은 화면을 확대시켜 12~13인치대의 큰 화면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휴대형 'HUD(Head Up Display)' 를 말한다.

선양디엔티측은 9월 출시할 제품의 경우, 2인치 내외의 화면을 약 120~130cm 앞 허공에 1024×576의 해상도로 12인치 내외 화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선양디엔티가 휴대전화기용 카메라 모듈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에 렌즈 전문회사인 웨이텍의 광학기술을 더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이 출시될 경우 휴대전화 겸용 DMB 단말기가 화면이 작다는 이유로 위성 및 지상파 DMB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양디엔티는 내년엔 휴대전화기 일체형 HUD 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종건 선양디엔티 상무는 "담배갑보다 조금 큰 크기의 휴대용 가상 디스플레이 제품에 DMB폰을 붙이면 지하철 등 어디서나 약 12인치 크기의 화면으로 방송을 즐길 수 있다"며 "갈수록 얇고 작아지는 휴대용 단말기 화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씨엔에스테크놀로지는 DMB 멀티미디어 칩과 광대역통합망(BcN) 영상전화기를 전시했다. 이 회사가 선보인 보급형 영상전화기는 영상전화용 멀티미디어 칩 '슈퍼티'를 탑재, 상대방과 초당 최대 30프레임의 생생한 화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급형 영상전화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영상통화 외에도 이메일, 단문메시지전송, 보안 기능과 뉴스,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어학교육 등 다양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20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고 일반전화에 비해 국제전화와 시외통화 요금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 최근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멀티미디어시대의 차세대 신제품과 기술이슈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었고,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업체들과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노키아, 모토로라 등 세계적인 휴대폰 메이커들이 부스를 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